

전북 2차 추경 4,787억 확보 '경제 숨통 틔다'

민생쿠폰 지역경제 활력 제고 AI 등 신성장 동력 확보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SOC 탄력 지역상품권·농업기반도 증액

전북자치도가 2025년 정부 2차 추가 경정예산에 총 8건, 4천7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며 짐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민생회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그리고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등에 전북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반영되었다.

우선, 전북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국비 4천여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것으로,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이후 전국민의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정치권의 노력으로 국비보조율이 국회단계에서 10%p 증가한 90%로 상향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전북자치도는 밝혔다.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하여 ▲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사업(229억 원),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175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AI 등 신산업 육성 및 각 산업분야의 AI 전환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지역 정치권과 도의 협력이 일궈낸 결과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분야에서도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에 보상비 120억 원이 반영되어 연내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54억 원)과 ▲배수개선사업(53억 원) 예산이 각각 반영되어, 여름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된다. ▲진안 구량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도 13억 원이 증액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활로가 마련됐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관

련해서는 정부예산 6천여원이 반영되었으며, 향후 시·군 발행 수요에 따라 도 전체 국비지원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국비지원율이 8%, 인구 감소지역은 10%로 상향 조정되어, 체감할인을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 외에도, 향후 부처 풀 예산 배분, 공모사업 대응 및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비지원 등으로 예산 확보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전북의 핵심사업들이 정부 2차 추경에 대거 반영된 것은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경기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만든다
도와 군산시는 7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방재시험연구원과 함께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도, 전북특별법 특례 적용 '어업잠수사' 첫 시범 도입

3월부터 군산·부안 시범 조업 포획비 38% 절감 실질 효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 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어종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

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4일 군산대 해양과학대학에서 시험연구구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 현황과 초기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시험 연구는 군산·부안 지역 마을어장(86건)과 어류등양식장(23건) 등 총 109건, 1백519.24ha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억5천만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과학적 조사는 군산대가 수행하며 어촌계는 어업잠수사를 직접 투입해 시험조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시험을 통해 어업잠수사 활용 시 기존 방식 대비 약 38%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년간의 시험연구를 통해 해수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험연구용역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어업인 숙원 해결이 실제로 가능해진 대표적 사례"라며, "어업잠수사 활용이 어업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례가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있는 어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자치도, 암모니아 활용 수소생산 실증 본격 착수

현대차 등 6개 기관과 협약 국산 수소기술 시험돌입 탄소중립 항만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가 청정수소 공급 기술 확보와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실증은 국내 수소경제 이행의 기술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전북이 수소산업 실증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도와 군산시는 7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에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방재시험연구원과 함께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조민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펠코 베르그 현대차 상무, 박훈모 현대로템 상무, 김성윤 방재시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전북도와 현대차 간 체결된 수소산업 총괄협력 업무협약의 세부 과업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증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대체연료 실증센터 부지에서 진행된다.

도와 군산시는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실증부지 제공과 암모니아 저장·공급설비 운영을 맡는다. 현대차는 암모니아 크래커 설계 및 실증 운영을, 현

대로템은 설비 제작·설치 및 시운전을, 방재시험연구원은 안전수칙 마련 등을 각각 책임진다.

암모니아(NH3)는 액화수소(-253°C)에 비해 비교적 쉬운 액화 조건(-33.4°C)을 가지고 있으며, 부피당 수소 저장효율이 높아 고압 기체수소 대비 약 2.7배, 액체수소 대비 약 1.5배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고온(700~900°C)에서 열분해하여 고순도 수소(H2)를 추출할 수 있어 차세대 수소 운반체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대규모 암모

니아 크래킹을 통해 모빌리티용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의 국산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정수소 공급 기술의 실증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항만, 수소 선박, 수소충전소 등과의 연계 활용도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도가 암모니아 기반 수소공급 기술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 전주 통합 완전반대!

완주군의회
Wanju County Council

정동영 의원, '피지컬AI사업' 국비 229억 확보

피지컬AI사업 예산 229억 추경 반영 "전북, 피지컬AI 중심지로"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은 지난 4일 전북의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25년도 예산 229억 원이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증액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으나, 과방위 예산결산위원회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과기부 및 여야 예정위원들을 직접 설득한 끝에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예산 증액돼 최종 확보됐다. 전북이 피지컬AI 실증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



정동영 의원

심기술 실증(PoC) 사업' 예산 229억 원(총 투자규모 382억, 국비 229억(60%)+ 지방비·민자 153억원(40%))은 전북에 피지컬 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기부의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에 반영된다.

'피지컬AI PoC(Proof of Concept)'는 로봇, 센서, 디지털트윈 등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물리적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실증 사업이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이 직접 증액을 제안

특히 현대차·네이버·리베리온·카이스트·전북대·성균관대·전북특자도가 함께 참여한다.

지방비·민자 총 135억원이 투입돼 총 사업비는 382억원에 달한다.

또 이번 사업은 디지털트윈(현실 공간을 컴퓨터 안에 복제한 가상모델), 로봇 기술, 액츄에이터(실제로 움직이는 부품), 강화학습 기반의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물리적 실증 기반' AI기술을 검증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동영 의원은 "AI 예산은 국가전략에 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설계하는 중심축"이라며 "전북이 피지컬AI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협의해 관철시킨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록 기자

전북컬링팀, 모교·유망주에 발전기금 기부

체육 선수환 구조 실천 해 마련됐다.

기부 대상은 선수들의 모교인 △민락중학교(경기) △화룡중학교(경기) △남춘천여자중학교(강원) △의성중학교(경북) △봉명고등학교(충북) 등 5개 학교와, 전북 지역 컬링 유망주 재학학교에 컬링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자발적 참여로 체육의 선수환 구조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감독 권영일)이 세계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에 이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선수들의 모교 및 지역 유망주 재학학교에 컬링 발전기금을 기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컬링팀 소속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한 것으로, 각자의 모교와 지역 후배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

해 마련됐다.

기부 대상은 선수들의 모교인 △민락중학교(경기) △화룡중학교(경기) △남춘천여자중학교(강원) △의성중학교(경북) △봉명고등학교(충북) 등 5개 학교와, 전북 지역 컬링 유망주 재학 학교 중인 △전주여자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등 총 7개 학교다. 컬링팀은 각 학교에 발전기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기부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권영일 감독은 "선수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교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부가 후배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전북 컬링의 미래를 밝히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우수'

올해 첫 시행 계획수립 적정성 분야서 높은 점수

전북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5년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 실적 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계획 평가는 행안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459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내용과 이행 관리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여건분석, 의견수렴, 기관 관심도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대책 집행 및 이행관리 △환류 및 제도개선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도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과 협업부서 검토회의 등 계획수립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관리계획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체계와 유형별 관리 대책 등이 담겨있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종합 기

본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 결과가 더욱 의미가 크다.

도는 그동안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으로 선제적 재난대비체계 강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확대,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한편, 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분석된 우수사례는 도내 시군과 공유하고 보완 사항은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재난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12일까지 '인구의 날 문화주간' 운영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또한 방송 콘텐츠와의 연계로 인구 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공연장 앞 로비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인구정책 관련 메시지를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초청 공연이 진행된다.

조윤정 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가족 중심의 건강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험형 콘텐츠와 정책 연계를 통해 도민 공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윤준병 의원,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발의

"국제 어업질서 유지 기여 정부 적극 나서야"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윤준병 의원

조치를 할 수 있고,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리나라의 어업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10년간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담보금은 해양수산분 1천250억 원, 해양경찰청 1천52억 원 등 2천30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전북자치도,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개원 협력

전북자치도는 7일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을 방문해 개원 준비 상황을 둘러보고,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0월 조성을 마치고, 오는 10월 공식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초기 운영상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단순한 치유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장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농임산물 우선 구매, 지역 인재 채용, 소상공인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더운 여름철 어린이 건강관리법

열사병과 일사병 예방법

폭염에 외출 삼가하기

충분한 물 섭취하기

더운 시간대에 휴식 취하기

헺렁한 옷 입기

우범기 시장, 완-전 상생발전방안 전격 수용

105개 사업 실행 계획 수립 재원 대책 강구 완주군에 대화 요청하기도

전주시가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전격 수용하고 완주군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발전방안은 완주·전주 통합의 균형발전 및 성장 기반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강민철 전주 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조화자 전주 시 시장협의회회장, 최창익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장회장 등과 함께 "완주군민과 언제든 소통하겠다"고 말하며 상생방안의 적극 수용 의사를 4층 회의실에서 밝혔다.

이날 우 시장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힌 상생방안은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모델로서, 지역주민들이 주도·구상하고 행정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10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은 △통합시 명칭·청사(3건) △지방의회 운영(3건) △민간사업단체 지원(7건) △지역개발사업(32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건) △주민복지

향상(14건) △현행 읍면 체제 및 기능 유지(5건) △공정한 공무원인사 기준 마련(8건) △산업분야 지원사업(5건) △교육분야 지원사업(6건) △체육분야 지원사업(5건) △상생발전방안 이행 제도적 마련(3건) 등이다.

시는 상생방안의 완주군민이 갖는 통합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기 앞서 공개 약속을 이어왔다.

지난 3월 우 시장은 완주·전주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지역에 건립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전하고, 전주문화재단을 비롯한 6개 출연기관을 완주지역으로 함께 이전, 통합시 행정을 이끌어갈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공했다.

6개 출연기관은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문화재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앞으로 시는 상생방안 105개 사업에 대해 장·단기 분류를 통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학군조정과 대기업·대형병원·상업시



전주시가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전격 수용하고 완주군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전주시>

설 유치와 같이 타 기관 및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여기에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완주군민이 통합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희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 오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통합의 논의는 완주군민이 먼저 뜻을 모아 상생발

전 방안을 제안하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도전하는 민의(民意)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작, 다른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에게 대화의 자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속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참여병원 32개소 확대

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응급환자의 신고부터 적정 병원 이송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일부터 참여 병원을 기존 24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참여하는 병원은 자인플러스병원(전주시), 전주기독병원(전주시), 수사량병원(익산시), 누가병원(군산시), 한국병원(정읍시), 민음병원(김제시), 석정웰파크병원(고창군), 남원병원(남원시) 등 총 8개소다.

모두 병원급 이상의 강소 의료기관으로, 진료역량과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Pre-KTAS)와 주요 증상정보를 119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면,

다수의 참여 병원에 동시에 전송되고 각 병원은 실시간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회신해 이송 병원을 신속히 결정하는 구조다.

기존의 우선전화 방식과 달리 시간 지연과 반복 전달의 비효율을 줄이며, 응급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빠르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했으며, 도소방본부는 복지여성보건국과 함께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시연회, 실무 TF 회의 등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 기반을 정비해왔다.

운영 성과도 분명하다.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병원 응답률은 53%였으며, 본격 운영에 들어선 올해 상반기에는 64%로 11%p 상승했다. 특히 병원이송 평균 소요 시간도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19분 35초에서 올해 18분 55초로 약 41초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오숙 도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연결고리를 더욱 촘촘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기업 유치 투자보조금 대폭 '확대'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공포 보조금 수령 조건 완화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시가 기업 유치 시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주시는 '첨단기업, 콘텐츠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7일 공포했다.

이에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연구개발(R&D) 분야까지 투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져 경제의 다양성 폭이 최대 늘어날 전망이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정보통신기술업 △문화콘텐츠업 △연구개발업 △기업부설연구소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투자 규모가 작은 첨단기술 분야의

보조금 수령 조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였다.

시는 투자보조금 외에도 교육훈련비 등 보조금 지원항목을 확대해 지식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 이전과 정착을 유도한다.

건물 신축이 불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비 지원내용을 신설해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는 그간 제조업 위주

로 추진해 온 기업유치에서 벗어나 지역 내 산업구조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인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혁신이 핵심이 되는 기업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망 스타트업, 연구소 기업, 첨단소재·디지털산업·콘텐츠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전주학' 발전·활성화 방안 논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찾기 위한 포럼에서 '한(韓)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는 7일 전라강역 선화당에서 '지방소멸위기 속 전주학의 해답은? 지역정체성과 미래 비전' 주제로 전주학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영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지역학의 구조와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이동희 전(前) 전주시사박물관장의 '전주학 연구성과와 향후방향'과 박대길 우리문화역사연구소장의 '전주 정체성, 동학농민혁명에서 찾다'라는 발표가 이어졌다.

오 교수는 지역학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주학이 실용적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동희 전(前) 전주시사박물관장은 2005년 전주학 출범 이후 쌓아온 성과를 제시하며, 앞으로 전주학 발전을 위해 전주학연구센터 설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는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병오 전주대학교 교수 △김진돈 전주문화원장 △이경재 전북대학원부 기획처장 △인기현 충북학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미래지향적인 전주학의 발전 방향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더욱 깊이 있게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학으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파트너교육 등 치매 친화적 공동체 조성

전주시 팔복동이 전주시 6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운영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치매안심센터는 7일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팔복동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 자리에는 윤동욱 전주 부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주시의원, 팔복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과 치매 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는 팔복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교육 △치매예방교실 △인공지능화프로그램 △치매예방홍보 등을 진행한다.

이에 팔복동은 평화1동과 진북동, 평화2동, 조촌동, 삼천1동에 이어 전주시역 여섯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지역 소상공인과 협조해 치매안심가맹점 5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해당 가맹점 구성원들은 치매파트너교육과 함께 치매극복 활동, 치매 친화적 마을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여섯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팔복동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마을 주민들께서도 우리 이웃인 치매 환자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7일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팔복동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전주시>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개발청, 매년 7월 7일 '새만금 펫푸드의 날'로

새만금+펫푸드+개발 사진 공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글로벌 식품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7월 7일을 '새만금 펫푸드의 날'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사)한국펫푸드협회(회장 김상덕)와 공동으로 "새만금+펫푸드+개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만금 펫푸드의 날은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케이(K)-펫푸드의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새만금에 로얄케인 등과 같은 세계적인 펫푸드 기업의 생산기지가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 식품허브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7월 7일을 새만금 펫푸드의 날로 정한 배경은 행운을 상징하는 럭키 세븐과 새만금 방조제의 국도 7호선과 새만금사업법(총 7조) 등에서 영감을 얻었다.

제1회 펫푸드의 날에는 "새만금+펫푸드+개발" 사진 공모전은 한 장의 사진에 "새만금, 펫푸드, 개발(렛)의 발"이란 세 가지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뽑는다.

국내 거주하고 새만금과 펫 푸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새만금청 누리집, 포스터 쿼일(QR)코드 또는 공모전 네이버폼(https://naver.me/FCr1Pkhp)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7월 7일(펫 푸드의 날)로

부터 8월 26일(세계 개의 날)까지이며, 국민참여단 및 팻 사진작가 등 심사를 거쳐, 결과는 10월 4일(세계 동물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특별상 2점과 '새만금, 펫푸드, 개발'의 3개 분야에 금, 은, 동 등 총 12개 작품이며, 수상하는 펫의 품종별 맞춤형 펫푸드가 부상으로 제공된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7월 7일 새만금 펫푸드의 날이 새만금 홍보·관광 활성화와 케이(K)-펫푸드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완산소방, 노후 공동주택 긴급 화재안전조사 전담반 운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 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화재안전조사 전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긴급 조사는 지난 달 24일과 지난 2일 부산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린 화재 2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에 따른 것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재영 예방안전팀장은 "노후 공동주택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과 자율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해민 기자

전주덕진소방, 여름철 차량화재 예방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여름철 차량 화재 위험에 따른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와 엔진룸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작은 결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냉각장치 고장, 배터리 과열, 전기배선 합선, 연료 누유, 실내 흡연, 인화성 물질 방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냉각수와 엔진오일의 주기적 교체, 배터리와 전선 상태 점검, 인화물질 제거, 불법 전기장치 개조 지양, 햇빛이 강한 장소나 마른 풀밭 위 주차 자제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됐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와 관련해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 여부가 피해 규모를 크게 좌우한다"며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구비와 작동법 숙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차량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

우선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시동을 끈 뒤, 탑승자는 즉시 차량에서 벗어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연기가 발생할 시 즉시 119에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화기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앞부분을 향해 신속히 분사하되, 무리한 진입은 피해야 한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차량은 움직이는 소방대상물"이라며, "무더운 여름철일수록 차량 관리와 대비가 곧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596억 추가 지원

상반기 이어 총 2천78억 용자 한우농가 294억 배정 농가 최대 6억~9억 용자가

전북자치도가 사료비 상승과 한우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59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지원금 1천482억원에 이은 조치로, 전년 대비 74억 원이 증가한 총 2천78억 원 규모의 용자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도 활용 가능해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급과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는 전체의 49%에 해당하는 294억 원이 배정돼 한우산업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료구매자금은 용자 100%, 고정금리

연 1.8% 조건이며,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 기준에 따라 한육우, 젖소, 양돈, 가금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암소비육지원사업, 모돈이력제 참여, 구제역·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9억 원까지 한도 확대가 적용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가족 사육지 관할 시군(읍면동) 축산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의 심사를 통해 기존 대출 잔액과 지원 가능 한도를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농가는 오는 9월 18일까지 지역 농협 또는 축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더불어 전북자치도는 2024년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과 사육 규모에 따라 용자 실행액의 0.4~1.8% 수준의 이차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자치도 농림



전북자치도가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59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수산 발전기금 병행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사료

비 부담 완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제21회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5~6일 열렸다. <사진=전북은행>

제21회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 '대성황'

도내 클럽 1400여 명 참가 지역생활체육 저변 확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제21회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21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배드민턴협회에 가입된 약 120개 클럽에서 740팀 14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전북은행장기 대회는 전북은행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배드민턴협회(회장 심용현)가 주관한다.

이날 등급 및 연령대별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각 종목별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선수 모두가 갖고 닭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경기를 치른 결

과 각 급수별 우승은 93팀이며, 경기 종료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도 실시했다.

또 경기장을 찾은 선수와 관중들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측뱅크, 브라운 코리아 사업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진행으로 경기장을 찾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이자 생활체육인 배드민턴을 통해 개인 체력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전북은행은 현장중심의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8곳 신규 선정

2029년까지 145억원 투입 생활 인프라·삶의 질 향상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도내 7개 시군, 8개 마을이 신규 선정됐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국

비 103억 원을 포함한 총 145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선정된 8개 마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규 선정된 마을은 △정읍 칠보면 석탄마을 △남원 대강면 옥전마을 △김제 죽산면 중남마을과 청하면 월현마을 △완주 고산면 소농마을 △진안 정전면 원월평마을 △고창 무장면 시거마을 △부안 부안읍 모산마을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노후주택 개보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및 소방도로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담장 및 축대 정비, 노인돌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도 함께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 도내 10개 시군 15개소의 사업을 발굴해 현장점검과 자체평가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모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평가에서 전국 150개소 중 85개소(56%)가 선정되는 가운데 우리 도는 8개소(53%)가 선정됐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당부

시설 점검·차단 방역 핵심 양돈농가에 예방 수칙 안내

농촌진흥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돈 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방역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며,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2019년 처음 발생 이후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들어 현재까지(6월 기준) 총 3건이 발생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단위의 선제적 차단방역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장마철에는 폭우와 침수로 외부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되고, 시설물 손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도 용이해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진다.

농가에서는 폭우에 대비해 농장 내 배수로와 축대, 울타리, 소독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 침수가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임시 제방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길을 차단한다.

야생 멧돼지, 들쥐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살핀다. 축사 주변 물웅덩이와 풀숲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해충을 방제한다.

농장 출입구는 가급적 한 곳으로 지정하고, 출입 차량 하부, 타이어, 작업자 장화 등은 바이러스 소독 효과가 검증된 소독약으로 철저히 소독한다. 외부인 농장 출입은 최소화하며, 작업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축사 간 이동 시 장화를 교체하는 것도 방역에 도움이 된다.

사료는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 빗물이나 곰팡이, 해충으로부터 보호한다. 음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되,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소독제를 물에 타 제공한다. 장마철이 지나면 축사 입구, 배수로, 울타리, 소독시설 등을 살펴 손상된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김은지 기자

명품 있어도 세금은 안 낸다?...道, 고액채납자 '정조준'

고소득자·채납세 8억 이상 환수 9월 압류 명품 공매 추진

전북자치도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소득 고액채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상반기 기준 총 8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환수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 총 17억7천3백만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8천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채납자 46명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1억4천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건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도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이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압류 대상 품목 중에는 IWC,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브랜드의 시계 및 가방, 다량의 귀금속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징수 과정에서 어려움은 적지 않았다. 일부 채납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소유권 분장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법적·물리적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압류 물품 중 상당수는 보관 비용 부담이 크거나 시장성 부족으로 공매 실익이 낮아 환수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실효적 징수 확대를 위해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주요 압류 동산을 오는 9월, '온비드(캠코 공매포털시스템)'와 전북도청 청사 내 전시를 병행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고소득 고액채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해 8억 이상의 체납액을 환수했다. 사진은 압류 명품. <사진=전북도>

이번 매각은 민간 수요를 유도하고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전북자치도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채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철거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정혜민 기자

농협전주시지부, 지역민에 '무더위 쉼터' 제공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이동노동자와 무더위 취약계층 휴식 공간 '무더위 쉼터'가 제공된다.

하양진 농협전주시지부장은 지역민들의 불볕속 온열질환 예방 위한 '무더위 쉼터'를 오는 9월말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역 한낮 기온이 35도에 오르는 등 가장 더운 6월과 가장 이른 열대야를 기록하며 한중막 같은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더위 취약계층인 이동노동자와 고령어르신 등은 휴식 장소 부족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농협전주시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이동노동자와 무더위 취약계층 분들이 폭염에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층 은행 영업점에 무



더위 쉼터를 조성했다. 더불어 시원한 생수 등의 음료를 제공하는 등 전주시민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양진 지부장은 "폭염에 지친 이동노동자와 고령어르신 등이 부담없이 농협전주시지부를 방문해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전주시지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설비 사고 예방·실무 역량 강화

구역전기 워크숍 개최 전기안전 문화 확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구역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및 전기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을 구역전기 협회와 함께 찾았다.

또 구역전기설비 관리자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4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홀에서 마련했다.

구역전기사업은 공공분야에 속한 열과 전기 등 에너지 공급을 특정 지역에 한해 민간사업자가 맡는 경우를 뜻한다. 구역전기협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크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관제시스템 개발 △전력력 이블 접속제 안전관리를 위한 진단 및 유지보수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전기설비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함께, 구역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례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구역전기협회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이번 워크숍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전기 안전 수준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성주 기술이사는 "전기안전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할 때 더 완벽히 확보될 수 있다"며 "이번 워



지난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구역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및 전기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전기안전공사>

크숍을 계기로 구역전기설비 관리 수준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정기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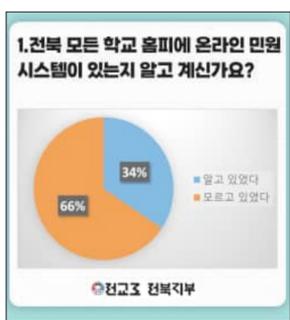
전교조 전북지부 “민원상담 예약시스템, 존재조차 몰라”

‘악성민원 차단 민원시스템’ 안내도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7일 논평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악성 민원 보호를 위해 만든 ‘학부모 온라인 민원 상담 예약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보내 교사 39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65.6%인 256명이 예약 시스템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온라인 민원상담 예약시스템’



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3년 9월에 도입

했지만 이번 설문에서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처리한 교사는 전체의 8%인 32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예약시스템에 대해 일선 학교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전부이고 학부모 교육이나 안내는 전무했다”며 “악성민원으로 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전북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민원시스템 이용 관련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공통 매뉴얼에 따라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지

원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교사 개인번호 제공 금지 및 민원처리 창구 온라인 시스템 일원화 △유선전화 및 비공식 경로 통한 접수 원칙적 차단 △교무실과 교실 등 민원 응대 장소에 녹음·녹화 가능한 전화기 및 장비 설치로 교사 보호 △민원 대응은 교장과 원장이 1차로 책임지고 처리 △악성 민원에 대한 고발 및 법적 제재 방안 마련 등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유권한대행 “무더위속 학생 건강안전 최우선”

“일사병·식중독·사고 없도록”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7일 전라회의에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다”며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밤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일사병이나 식중독, 익사 사고 등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관련한 모든 부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이어 “다음 주부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다”며 “이미 여름방학 학교관리 자료를 학교에 발송했는데, 학생 주도형 적정 과제 제시를 우리 학생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실습실 유해 요인 점검...학생·교사 건강 보호

직업계고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계고 실습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학생 및 교

원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습 종류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 인자는 △복공과 선반 밀링 실습 시 발생하는 소음, 목재분진 등 △용접 실습할 때 용접흄, 망간, 산화철, 크롬 등 △납땜 실습할 때 납, 구리, 주석 등 △도장 실습할 때 톨루엔, 크실렌 등이며 그 외 아세톤, 곡물분진 등이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

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22개교 직업계고의 86개 실습실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작업환경측정 전문기관에 위탁해 정밀 측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실습 참여 학생 및 교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도 함께 진행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실습실 환경 개선과 환기설비 보안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과 교원의 건강

진단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및 보건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실습실 유해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의 안전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 학생과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컨설팅 마무리

상반기 도내 50개교 대상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상반기 도내 50개교를 대상으로 ‘2025년 학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컨설팅’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개인정보 업무 개선 추진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진행한 맞춤형 지원이다.

컨설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및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신규 담당자 위주의 실무 중심 자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이해도 및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현장의 만족도가 높았다.

실제 컨설팅 종료 이후 실시된 조사에

서 응답자의 86%가 ‘매우 만족’, 14%가 ‘만족’이라고 응답해 개인정보 업무 이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예시 확대 △누리집·내부관리 계획 점검 병행 △컨설팅 시간 확대 및 집합연수 운영 등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컨설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부터 실제 점검 및 보호 수준 평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

이다.

또한 내년 컨설팅 계획 수립 시 올해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 현장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지원 중심의 컨설팅으로 전환한 결과 현장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대학일자리본부가 7일 완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 키움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우석대학교>

우석대, ‘꿈 키움 기업탐방’ 프로그램 진행

완산여자고, 호텔에서 직업 체험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대학일자리본부 7일 완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 키움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꿈 키움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직무 이해도를 높이며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기업탐방에는 완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58명이 참여했으며, 광주 힐리데이인 호텔에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호텔 산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실제 직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재광 대학일자리본부장은 “고용노동부의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지역 고등학생들이 산업 트렌드를 체감하고,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학생들, AI-데이터로 지역 문제 해결 도전

전북대학교 JST공유대학본부가 전북 지역의 전략산업인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 경진대회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최했다.

참가 학생들은 2박 3일간 팀을 구성해 지역 산업 현안 분석부터 문제 해결 아이디어 기획, 프로토타입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도출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프로젝트로 구성돼,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대상은 소멸 위기 농촌 살리는 법, 데이터로 본 농업 활성화의 열쇠라는 주제로 농업 지역 경쟁력 분석 대시보드 아이디어를 제시한 ‘plowdata(6조)’ 팀이 차지했다.

/최성민 기자



온열질환 주의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습관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물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십니다

2 그늘 나무그늘이나 차양막등을 활용하여 햇빛을 최대한 차단합니다

3 휴식 충분한 휴식을 하고 무리 하지 않습니다



군산 고군산군도 '계절학기' 종료 대학생 창작 콘텐츠 전시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진행했던 '섬에서 계절학기' 강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달 30일부터 4박 5일 동안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에서 고군산군도를 담은 가상현실(VR)과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활용을 주제로 교육에 참여했으며, 성과 발표회(쇼케이스)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끝냈다.

성과 발표회는 지난 4일 (주)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서 열렸고, 한국섬진흥원 조성환 원장·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전주대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 한동승 단장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가상현실(VR)·메타버스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총 15개 팀이 각각 콘텐츠를 발표했고, 현장에서 투표를 거친 후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이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색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시는 대학생들이 제작한 창작물을 위해 연말까지 6개월간 (주)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와 군산화관 미디어터널에 전시하고,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시간여행자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 방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구강 건강 지원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 확대

익산시가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 구강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보육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구강보건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상 시설을 넓혔다.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범위가 기존 보육원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복지관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시는 오는 18일 복지관을 방문해 사전 신청한 5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위생 관리 교육을 통해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불소도포로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구강 질환을 예방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남부시장 '아나바다' 매주 토요일 누구나 참여 가능

익산 남부시장에서 착한 소비와 친환경 실천이 만나는 특별한 장터가 열린다.

익산시는 남부시장에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행사가 오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부시장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돗자리 등 전시용 물품만 준비해 오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신청은 행사 하루 전까지 남부시장 상인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현장에는 경매, 공연을 비롯해 사진촬영 장소도 조성돼 남부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대야전통시장, 군산 대표 전통시장으로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착수 국비 1억1천만 확보

군산 대야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군산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야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방문객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을 선별한 뒤 사업비를 투자해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에 대야 선정된 이후 원활한 사업 추

진을 위해 속도전을 진행했다.

우선 5월 9일 '대야전통시장 첫걸음 한마당'을 개최하여 상인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안내하였다.

이어서, 5월 15일에는 일자리경제과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상인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다.

이후 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6월 5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국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사업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은 △결제 편의 개선 △원산지·가격 표시 체계 정비 △상인조직 강화 △위생 환경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시장의 기본 시설 및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외에도 △시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

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위생적 장보기 환경 조성 △상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방문객과 상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장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율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대야전통시장은 다른 지역 우수 전통시장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는 광주 말바우시장과 경남 화계장터 등 전국 전통시장 명소를 방문해 운영 사례를 참고했고, 시장 간 업무협약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야전통시장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쾌적하고 신뢰받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무더위 탈출!'...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 개장

7월 19일~8월 17일 운영

정읍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원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읍천에 조성한 '미로분수 물놀이장'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미로분수는 지난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정읍시 시기동 225-3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시설은 물놀이 바닥분수와 음악분수, 거울연못 등의 연출이 가능한 복합형 바닥분수로,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름 명소를 기대를 모은다.

정식 운영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시는 정식 개장에 앞서 7월 5일부터 6일까지, 12일부터 13일까지 두 차례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점검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읍천 미로분수

<사진=정읍시>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다. 매 정시마다 40분간 물놀이가 진행되고, 이후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음악분수는 중단된다.

시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임시 그늘막과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도심 속 '물 쉼터'로 여름 더위 식힌다

폭염특보 속 수경시설 가동 바닥분수·실개천·인공폭포

익산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의 수경시설을 본격 운영한다.

익산시는 중앙체육공원과 서동공원, 모현공원 등 15개 주요 공원에 바닥분수, 인공폭포, 실개천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개방해 시민들의 무더위 쉼터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중앙체육공원에는 음악과 함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음악분수가 하루 5회 가동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6~7시(안개분수) △오후 4:30~5:10 △오후 7:00~7:40 △오후 8:00~8:40 △오후 9:00~9:40이다.

또 영등시민공원,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등에도 바닥분수와 실개천, 광장분수가 마련돼 도심 속 시원한 휴



식처가 되고 있다.

서동공원과 황동보살말공원,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등에서는 주말(금·토·일) 한정으로 라인분수, 인공암벽분수, 생태연못 등 일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현공원과 송정제공원에는 물링포그와 터널분수를 갖춰 다양한 형태의 수경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소라산자연마당, 배산부영공원 등 실개천이 조성된 공원에 더위를 피해 산

책하기 좋은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배산휴먼공원은 8월 한 달 간 하루 6시간(11시~17시) 운영되는 발물놀이터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시는 수질 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바닥분수 시설 보수 교체와 정소를 실시한다. 이에 수요일은 바닥분수 이용이 제한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무료 지원

담당 공무원 도면 직접 설계

정읍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축 민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농막이나 임시창고처럼 컨테이너 또는 유사 구조물의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

원인이 설계도면을 작성하려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그려주고 있다. 연평균 약 100건의 민원이 이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축조 과정에서 정해진 설계도면이 필요하지만, 도면 작성은 일반 시민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절

차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행정직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왔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건축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식품소재·반가공 육성사업 공모

7억원~최대 15억원 지원

정읍시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은 완제품을 제외한 중간재로서, 국산 농·축·임산물을 활용한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국산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식품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개소당 7억원에

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식품소재의 생산, 유통, 상품화를 위한 시설과 장비 구축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 심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면 평가, 현장 확인,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이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식품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폭염 비상 체제 돌입... 온열질환 최소화

그늘막·무더위쉼터·살수차 등

군산시가 여름철 폭염 관련 비상 체제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군산시 포함 전국적으로 발효된 폭염주의보 발효 후 열린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수립한 '폭염종합대책'을 준수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꾸준하게 추이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 전광판 20개소에 기상청과 연계하여 기상특보, 현재 기온 등을 알려 시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사전 수립된 대책에 따라 그늘막 175개소, 무더위쉼터 549개소를 가동하여 낮에 이동하는 시민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무더위쉼터의 경우에는 냉방 장비가 준비되어 있으며, 길을 걷던 시민이 언제든지 입장하여 열을 식힐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아울러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효율적인 살수를 위해 지역을 2개 권역(동군산/서군산)으로 나눠 총 4대의 살수차를 배치해 본격 운영중이다.

폭염에 대비해 시청 각 부서도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례 회의에서 △시민이 찾아오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행정 △그늘 및 노약자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 방문 예찰에 최선 △지속적 폭염 저감 시설 수요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소, 경로장애인고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경로당 냉방비 점검 등을 사전에 실시했고,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현황을 취합하면서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는 중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방학 동안 실무 경험... 익산시, 대학생 행정연수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발대식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연수'를 본격 시작했다.

시는 7일 익산청년시청 대강당에서 '대학생 행정연수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과 연수의 의미를 공유하고, 민회수 익산청년시장이 청년시청의 역할과 다양한 익산시의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여름방학 행정연수에는 총 500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 중 149명이 최종 선발됐다. 대학생들은 시청 각 부서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7일부터 오는 8

월 1일까지 4주간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 행정연수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시청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을 돕고,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경제적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매년 지역 청년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으며,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겨울방학 행정연수는 참가자 98%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정현용 익산시장은 "이번 행정연수는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스로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이통장 대상 청렴·인권 직무역량 교육

청렴 실천 서약식 진행

군산시가 7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신규 임용된 이통장과 관련 공무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통장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통장 역량과 함께 청렴 의식과 인권 감수성 등 지역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과정은 △청렴 실천 서약식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뢰받는 지역사회 문화와 인권 존중 의식을 바탕으로 한 마을 리더의 자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시는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과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맡는 이통장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이자 지역사회의 리더"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지역의 중심으로서 책임감과 청렴성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 이통장 854명 중 600여 명이 지난 4월 새마을 임명됐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하반기 착공

2260억 투자 2028년까지 산업·주거 복합단지 조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4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미래산업 유지를 위한 핵심 거점인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고시는 2024년 5월 전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가 최종 완료됐다.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는 김제시 상동동 일원에 89만5천㎡ 규모로 2028



김제시는 지난 4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년까지 22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 유치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식료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12개 업종들을 유치할 계획이며,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산업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평선 제2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조성을 통해 김제시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김제시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청년 ON 챌린지’ 사진·영상 공모전

14일~8월 14일까지 접수

고창군이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역의 매력을 담기 위한 ‘고창청년 ON 챌린지’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의 일상과 활동, 그리고 고창의 자연과 명소 등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오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창에서의 일상, 청년 활동, 지역 명소 등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물에는 해시태그 #고창청년ON챌린지를 포함하고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야 하며, 고창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gochangyouth를 반드시 태그해야 참가가 인정된다.

참가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을 준비해 이메일 또는 고창군청 3층 청년창업팀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콘텐츠는 내부 심사를 통해 총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에게는 상장 및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고창군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의 자발적 콘텐츠 제작을 유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신림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고효율창호·냉난방기등설치

고창군보건소 신림면보건지소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보건소,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및 냉난방기 설치, LED조명 교체 등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성능 및 실내공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조사 및 컨설팅에 적극 참여했으며, 총사업비 4억 4000만원 중 3억3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앞서 고창군은 2024년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정동보건진료소, 강남보건진료소 총 2개소에 대해 사업 추진 중이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기관 에너지를 절약하고, 더욱 쾌적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농업인재육성재단 장학생1118명에10억3900만원지급

부안군 농업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지난 4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안군 농업인재육성재단 장학성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농업인재육성재단은 2017년 대학교 1학년 1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지난 202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대학생 전 학년 1~2학기 반값등록금 지급을 실현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값등록금과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 비전학자를 위한 취업·창업 지원 장학금 등 농업인재육성재단의 장학제도는 다방면에서 학생들의 장학혜택 수요를 고려하고 있으며, 대학 반값등록금의 경우 선발 공통기준이 명확하고 신청 방법이 간편해 매년 많은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농업인재육성재단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1학기 장학생으로 반값등록금 907명 등 4개 분야 1118명을 선발해 10억 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 선발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2개월간 서류검토 및 중복심사를 거쳐 6월 27일 농업인재육성재단 제2차 이사회에서 장학생 선발 심의를 마쳤으며, 2학기 장학생 선발은 오는 9월 중 신청접수 예정이다.

권익현 농업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꿈을 마음껏 응원하고 학생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활짝 도약하는 선진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여름철 산림피해 사전예방사업 추진

고창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철 산림피해 사전예방 사업으로 임도 배수로 및 노면 정리, 쓰러진 나무 제거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도 제거해 주택피해 예방과 주거안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군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임목 배치자, 임도 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잠재위험 우려지에 대해 우기철 집중점검하고,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응급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신 산림복지과장은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면안정성, 계류 상태, 토사 유출 여부 등 지속적인 예찰 및 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의회, 공공배달앱 도입 등 17건 논의

7월 의원간담회 개최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7일 오전 10시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7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17건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행정지원과가 제출한 ‘김제시 고령자방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안’이 주목받았다.

경제진흥과의 ‘김제시 공공배달앱 도입 및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승일 의원이 제288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이 사업은 배달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들의 배달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밖에도 교육과 농업 분야의 혁신 사업들도 보고됐다.

서백현 의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다수 제안됐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탄소중립 실천 가정에 총 3천만원 지급

고창군이 올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 1309세대 참여 가정에 총 3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최근2년간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과 현 사용량을 비교해 5%이상 감축할 경우 가정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받은 가정은 현금, 그린카드, 상품권 그리고 사회적 기부에 참

여해 탄소중립 녹색생태에 동참했다.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분야 외에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의 경우 참여 시점 기준 주행거리 대비 참여 종료 시점의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할 경우 연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녹색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탄소포인트제에 더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 도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2025 마을기술사업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술사업단운영은 귀촌인 등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지역 주민을 발굴·육성에 자발적인 생활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석)가 주관해 운영하며,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친 황산면을 제외한 14개 읍·면 100가구 내외의 취약계층 가구가 대상이다.

읍·면당 2개 마을, 마을당 약 5가구

를 선정해 지원하며, 3일부터 11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은 후, 전문 재능봉사자가 사전 방문을 통해 간단한 집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본격 활동은 9월부터 11월까지 마을과 일정을 조율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이 가진 재능을 나누며 이웃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기반 모델”이라며,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임시 공용터미널 운영 시작

심근수,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빠른 완성 약속

고창군이 임시터미널 운영에 들어가면서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본격화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7일 오후 임시터미널 운영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운전기사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빠른 완성을 약속했다.

이날 새벽 0시10분 인천공항행 버스를 시작으로 고창군 관내 버스는 기존 터미널과 500m가량 떨어져 있는 임시터미널에서 승·하차가 이뤄지고 있다.

고창군은 한달 전부터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이장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터미널 이전내용을 알리면서 주민 혼선을 최소화 했다.

임시터미널에는 매표소와 화장실, 안락한 대합실이 마련돼 있고, 여름철 불



편 최소화를 위해 에어컨과 양심냉장고가 설치되며 무더위 쉼터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동시에 기존 터미널 철거공사도 이달 중 시작된다.

현재 터미널 매표소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이 마무리 중이고, 터미널 철거 공사 중 먼지와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가림막도 설치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관문, 다양한 물산이 오가는 버스터미널이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 운영된다”며 “운영 초기 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민 불편 최소화 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읍 모산마을, 노후주택 환경 개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7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부안군은 2019년 백산 화포마을을 시작으로 동진 장동, 진서 구진, 줄포 원대산, 허서 평지, 상서 우덕·봉은, 백산 대산 등이 선정돼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부안읍 모산마을로 노후주택 비율과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높아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 위생, 안전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마을 생활인프라 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다.

올해 부안읍 모산마을의 선정으로 부

안군은 국비 13.5억 원, 지방비 5.4억 원 등 총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향후 4년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생활 기반시설(상하수도, 배수로, 도로 등) 개선 등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7년 연속 공모 선정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도내 첫 어구보증금제 시행

해양환경보전수산자원보호 최대3천원환급

부안군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며 유령어업의 온상이 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고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이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조업 중 폐기나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작년보다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지방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스포링 통발이 1,000원, 원형이나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통발은 3,000원으로 어업인들이 폐 통발어구를 반납할 경우 반납 어업인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고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폐어구 1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회수촉진 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어구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해 부

안수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어업인들의 접근이 쉬운 격포 국가어항 내에 폐어구 수거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 상주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폐어구의 자질 없는 수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면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폐어구를 투기 및 방치하지 말고 회수해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 호남 유일 아동친화과 신설

‘아동 주체 정책’ 구축 본격화 유니세프 상위 인증도 잇따라 복지 넘어 지역 성장전략으로

완주군이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아동 정책 전담부서인 ‘아동친화과’를 신설하며, 유니세프 최고단계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을 시작으로, 2020년 상위 인증, 2024년에는 전국 최초로 상위 인증을 갱신한 바 있다. 이번 아동친화과 신설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지

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기반 마련의 일환이다.

신설된 아동친화과는 아동의 권리 보장, 보호, 돌봄, 참여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으로, 총 34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아동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소속팀은 아동청소년, 돌봄지원, 아동보호, 드림스타트로 4개 팀으로 구성됐다.

군은 그동안 전국 최초로 아동유무부즈 퍼슨 사무소와 아동친화상점(아이러브존)을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청소년의 회와 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공유유산 대여서비스 △휴먼부스(맑은

숨터) △무인 펌프병 회수기 설치 등 아동 제안 정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고, 청소년 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는 총 7,000만 원의 예산도 반영됐다.

이러한 정책 성과로 완주군은 최근 3년 연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어워드 최우수상과 함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아동정책 선도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친화과 신설은 아동정책을 단순한 복지 수준을 넘어 지역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 통합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유의식 완주군의회장

박찬대 의원 만나 “행정통합 반대” 입장 표명

민주당권주자박찬대 의원에 “전북특별자치도 안착이 우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국회의원을 만나 완주군의 핵심 현안인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유 의장은 면담에서 완주군의회 공식 입장을 대변해, “전주시와의 행정통합은 현재 시점에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재 완주군은 세 차례에 걸친 행정통합 추진이 주민 갈등과 지역사회 분열만 초래한 바 있어, 이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완주와 전주는 행정·지리·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발전 방향을 가진 만큼, 각 지자체의 자율성과 특성을 살리는 개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전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4일 박찬대 국회의원을 면담했다. <사진=완주군의회>

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논의 자체가 중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간 통합을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전달했다.

유 의장은 앞서 지난 5월 김두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 위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완주군민의

입장과 행정통합의 부작용, 향후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박찬대 의원의 만남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졌으며, 완주군의 현실을 정치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한 지속적 행보의 일환이다.

또한 그는 “완주군의회는 입장은 지역 주민의 뜻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발효 간장’ 향치매·혈당 개선 효과 입증

발효진흥원 연구 세계 ‘주목’ 인지기능대사질환 대응 효과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이 전통 발효 식품인 간장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장이 기억력 개선, 체수분 대사 유지, 혈당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는 세계적인 영양학 학술지인 뉴트리언츠(Nutrients)계재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사회에서 인지기능 저하와 대사질환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진흥원은 호서대학교 박선민 교수팀과 협력해 인지기능 저하 실험 쥐에게 일정 기간 간장을 섭취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쥐를 대상으로 간장 섭취 효과를 관찰한 결과, 연구팀은 간장을 섭취한 실험 쥐에서 기억력 개선, 체수분 균형 유지, 혈당 조절, 장 건강 증진 등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순창발효미생물진흥원이 밝힌 전통 발효식품 간장의 기억력 개선·혈당 개선 등의 효과가 세계적 영양학 학술지인 뉴트리언츠(Nutrients)에 게재됐다. <사진=순창군>

특히 간장 섭취를 통해 뇌 신경세포 사멸이 감소해 향치매 효과가 확인됐으며, 항산화 관련 호르몬 시스틴 조절을 통한 수분 대사 개선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으로 혈당 수치 안정화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간장 섭취 후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 비율이 증가해 장 건강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발효식품인 간장이 우리 건강에 다각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

요한 발견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의 전통 발효 식품이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대인이 겪고 있는 치매, 당뇨, 장 건강 문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연구는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전략작물 가루쌀 모내기 한창

가루쌀 재배면적 6배 확대 이모작 시 인센티브 혜택

남원시(시장 최경식) 가루쌀 생산단지에서 가루쌀 모내기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남원시 가루쌀 생산단지는 올해 272ha(새싹범인 175ha 지원농업인 97ha)로 2023년 처음시작했던 45ha에서 약 6배 재배면적이 확대됐다.

가루쌀 직접 이앙시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으로 적정 이앙시기를 준수한다면 수발아(수확하기 전에 이삭에서 썩어 트는 현상) 발생이 최소화되고 생산 수확량이 증대된다. 일반벼에 비해 늦은 이앙 시기 덕분에 동계작물과의 이모작에 용이하다. 또한 생육기간이 짧아 포장 관리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전략작물 직불금이 200만원/ha 지급되고, 동계작물 밀·조식료와 이모작을 할 경우 이모작 인센티브를 포함해 350만원/ha이 지급된다.

또한 새싹범인(대산면)에서는 베이커리카페까지 운영하면서 직접 가루쌀 생산(1차), 가루쌀 가공(2차), 가루쌀 빵 판매(3차)까지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체납차량·폐업 콘도 정리 징수평가서 특별교부금 확보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

도는 매년 상·하반기 시·군 세수 규모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 등 9개 지표를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일제 정리추진단(단장 부시장) 운영이 주요했다.

기간 중 읍면동 협업을 통해 △체

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적극적인 부동산 공매,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등을 중점 실시해 고질적 체납액을 줄이는데 매진하고, 특히 장기체납으로 20여년간 폐업중이던 남원효산콘도를 매각하는 결실을 봤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원시는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천 4백만원을 확보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하반기에도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납세자보호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맞춤형 체납관리 징수 성과 ‘톡톡’

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생계형 체납 복지연계 추진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징수율, 행정노력도, 현장중심 체납처리 등 다양한 항목에서 실시됐으며, 완주군은 전반적인 징수성과 체계적인 운영 면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현장 방문 중심의 실태조사 △체납자 맞춤형 분납 유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등 다각적인 체납처리 전략을 추진해 높은 징수성과를 달성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수상은 체계적이고 성실한 징수 행정을 통해 군민의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2년 연속 지방세 징수 실적 ‘으뜸’

누적 교부금 1,900만원 안내·공매 전방위 대응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으뜸’ 등급을 받아 지방세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8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됐으며, 전년도 수상분을 포함해 누적 도비 수상금은 총 1,900만 원에 이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지방세 9개 항목의 징수실적과 체납 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순창군은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 감소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납세자 맞춤형 안내 강화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다양한 방식의 징수 전략을 적극 추진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공감과 소통 중심의 징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폭염경보 발효에 TF중심 안전관리 체계 강화

순창군은 최근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폭염 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부서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다각도의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운영질향자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과 감시체계 운영, 농축산업 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과 안부 확인 전화 실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폭염 저감시설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그늘막과 얼음생수를 보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 1일부터 폭염특보 발령 시 관내 9개소 그늘막에 얼음생수를 지속 보급하고 있으며, 4개 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영해 도로 온도 저감에 나서고 있다. 또한 무더위 쉼터의 냉난방기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장마 이후 찾아온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운영질향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주변 이웃들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지역인재 키운다’ 애향장학금 2억 2천 전달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최근 완주군 인재개발원에서 장학생, 학부모 및 재단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일반장학생 30명, 특별 장학생(생활장학생, 지역고교인 및 재학생, 지역대학입학, 예술체육기능사업) 180명 등 총 210명을 선발해 장학금 2억 2,300만 원을 지급한다.

일반장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생활장학생 1회 100만 원, 지역대학 입학 200만 원, 지역고교 입학 50만 원, 지역고교 재학 50만 원, 예술체육 기능장학생은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210명으로 지난해 197명 보다 소폭 늘었다.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대학입학 장학금을 받은 한 우석대학교 재학생은 “재단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인 인재스쿨, 진로진학컨설팅 덕분에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이번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142건 개선 나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7월 현재까지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험성평가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그 결과 총 14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으며, 하반기 중 위험성 감소대책을 적극 추진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화성 물질과 기계설비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해 사고위험을 크게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 대상 안전교육과 위험성 인식 제고 활동도 강화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입양가족 쉼터 개소·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입양가정 교류·소통 공간 마련 서동해 동해금속회장 후원

완주군이 지난 5일 소양면 주영광교회 마당에서 ‘입양가족 쉼터 개소식’ 및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입양가정의 정서적 지지와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된 쉼터의 문을 여는 자리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서동해 동해금속 회장, 홍경민 (사)한국입양홍보회 회장 및 강명복 지부장, 전북 입양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쉼터는 (사)한국입양홍보회 전북지부가 서동해 동해금속 회장의 후원금 5,000만 원을 통해 조성한 공간으로 입양가정들이 모여 교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

이다. 본 행사에서는 장학증서 전달식을 비롯해 감사편지 낭독, 티이프 커팅식,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오찬을 함께하며 건강한 입양문화 확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학증서 전달은 총 11명의 완주군 자녀에게 입양아동 입학축하금으로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장학금은 완주군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의 지정모금을 통해 마련됐다.

홍경민 (사)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은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필요한 사업들을 앞으로 더욱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진안군, 폭염대비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관리 총력

진안군이 연일 지속되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6월 20일부터 보건 진료소 등 23개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폭염대응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자주 마시기 △한낮 외출 자제하기 △시원한 환경 유지하기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준수해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도 매진하고 있다. 또한 온열질환의 발생 현황과 특성을 모니터링 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보건서비스와 안부전화를 병행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폭염에 노출돼 고열, 어지럼증, 근육 경련 등 이상 징후가 있을 시에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해 신속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그늘, 물, 휴식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치매안심센터 기억작공 교재 활용 인지훈련

장수군이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기억작공' 교재를 활용한 맞춤형 인지훈련으로 기억력·시각·시공간·지남력·계산력·주의집중력·문제해결력 등 7개 인지영역을 주차별로 세분화해 진행한다.

또한 '한국형 노인 우울척도(SGDS-K)'와 '주관적 기억감도 설문(SMCQ)'을 통해 교육 전후 인지 기능과 정서적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자존감 회복과 기억력 향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이번 예방교실이 어르신들의 일상 속 시각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 축구유소년 꿈나무들 고흥 축구페스티벌서 기량 입증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 소속 초등학생 39명이 5일 전남 고흥군 박지성운동장에서 열린 '고흥군 리그별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 참가해 1학년(2위)을 제외한 전 학년이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과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소속 학생들과 순천 축구 유소년 팀 간의 교류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단법인 팀차붐(Team Chaboom)과 고흥군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총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1학년~4학년은 학년별 4개 그룹, 5-6학년 1개 그룹 등 5개 그룹이 경기를 펼쳤다. 각 팀당 5명씩 출전해 전·후반 평균 6분씩 약시 경기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무주군은 1학년 2위, 2-3학년 각 1위, 4학년 1, 2위, 5-6학년 1,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기 후에는 우승팀 트로피와 리그별 메달, 사인볼 등이 수여되는 시상식이 이어져 참가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다.

무주군은 지난 3월, 축구교실(2023년~)을 통해 무주지역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무주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차범근 이사장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 군민증을 수여한 바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 아이들이 차범근 축구교실을 통해 소통과 협력,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라며 "이 아이들이 무주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본격 개량

총사업비 107억 투입 21개 노후 하수관로 개선·맨홀 교체

무주군이 지역 내 21개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7월에 착공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107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하수관로 8.8km를 굴착 교체하는 것을 비롯해 맨홀 148개소를 교체한다. 이번 사업 추진은 하수관로 기술 진

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주군 내 21개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 구역에서 하수관로의 노후화, 침하, 관 파손 등으로 인한 불명수(오염원 불명확한 유입수) 유입이 지속돼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봉열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하수도 팀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관로 개량 사업을 통해 하수관로의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한편, 도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을 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불명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공중 보건 향상과 수질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무주읍과 안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이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관로 개량 사업 추진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무주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지역 내 21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 왔다.

올해 6월에 환경부 재원 조달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 '청신호'

진안군, 댐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5억 확보

진안군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주관한 2025년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사업 공모에서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8개 지자체가 참

여해 발표 심사를 거쳤으며, 이 가운데 총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진안군은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19억 8,500만 원 중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사업 위치는 용담면 수천리 542-24번지로, 기존 용담호미술관으로 사용되던 수전후계소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관광시설로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은 용

담호 수변 조망의 최적 입지에 위치한 지역 명소를 거닐수 있는 우수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함께 선정된 '댐 로컬브랜딩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12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K-water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전북도 최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진안군은 전북자치도내 최초로 7월부터 미래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여성들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높아지는 출산 연령 및 난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진안군의 선제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다.

지원 내역은 난자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이다.

그동안 고가의 시술비로 인해 시술을 망설였던 여성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은 시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이다.

단, 20세 이상 29세 이하 여성은 조기

폐경 가능성(AMH 1.5ng/ml)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며, 난소기능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는 AMH수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미래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충북 영동군, 우호 협력관계 강화

정군수,임실에고향사랑기부 세계국악엑스포관심요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치즈의 원조인 전북 임실군과 k-와인의 고향 충북 영동군이 끈끈한 우애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임실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충북 영동군 정영철 군수는 지난 3일 심 민 임실군수를 찾아 지속적인 우호 협력관계 강화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함께 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 군수는 이날 임실군에 고향 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 하며, 남다른 임실 사랑을 보였다.

정 군수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에 방문해 보니, 치즈뿐만 아니라 옥정호와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멋진 관광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우리 군은 와인, 임실군은 치즈가 유명한 만큼 서로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특히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린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도 임실군이 꼭 함께하길 바란다"고 엑스포 개최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심 군수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 참여하고, 그 축제의 장에서 임실N치즈도 적극 홍보하겠다"며 "올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심 군수는 9월 12일 개막하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 방문하는 한편, 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치즈의 원조인 전북 임실군과 k-와인의 고향 충북 영동군이 끈끈한 우애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임실군>

동군에 고향사랑기부도 할 예정이다. 임실군도 엑스포 축제장을 찾아 임실N치즈 판매 부스를 비롯해 임실방문의 해, 고향사랑기부, SNS 구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양 지자체장은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을 서로 응원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교류를 통한 훈훈한 정을 나눴다.

또한, 이날에는 영동군 군민자문단이 임실을 방문해 '영동군 군민자문단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개최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자문단의 역량 강화와 동시에 영동군 최대 행사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추진 상황을 자문단과 공유하고,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의견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민자문단은 일반행정, 문화관광, 청년복지, 농업경제, 도시개발 5개분과 30명으로 구성된 군정의 자문역할을 특목하고 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전통국악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 행사로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가 간 문화교류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영동군의 뜻깊은 행사에 임실군도 함께 응원하고 협력해 앞으로 두 지역 간의 지속적인 우정과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필봉농악, '춤추는 양상쇠' 성황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

국가무형유산인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 공연이 지난 5일 임실 필봉문화촌 대동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올해 공연은 필봉굿을 지켜왔던 울해 양순용 상쇠의 30주기가 되는 해로서 그의 삶을 연희 창작극으로 풀어내어 '춤추는 양상쇠' "세사는 금삼척이요, 생애는 주일배라"라는 주제로 지난 5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필봉문화촌 대동관 및 산대마당에서 펼쳐진다.

춤추는 상쇠 공연은 지난 2012년부터 14년 연속 공모사업이 선정돼, 대한민국 대표 K판굿 놀이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 필봉문화촌에 올해 말 한옥체험관 9동이 건립되면 전통문화 체험 등 힐링 북해로서 그의 삶을 연희 창작극으로 풀어내어 '춤추는 양상쇠' "세사는 금삼척이요, 생애는 주일배라"라는 주제로 지난 5일 개막 공연을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기후변화 대비 사과 과원 현장 행정

장수군이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과수원 현장 행정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현장 지도는 사과 과원을 대상으로 일소피해와 병해충 예방 중심의 기술 지도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상예보에 따르면 장수군을 포함한 내륙 중산간 지역의 울어름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돼 농작물 생육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관수시설이 미비한 사과 과원을 중심으로 대체 물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농가별로 다양한 수분 유지

기술을 맞춤형 제공하고 있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기술지도를 지속 추진하고 병해충 예방과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여름철 고온기 사과 재배에는 물관리, 병해충, 일소피해에 모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기술지원과 현장점검을 통해 고품질 장수 사과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장애인 취업 지원 '꿈앤 베이커리' 열어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내 개소

진안군 직영 유통매체인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진안점'에 장애인 취업 지원형 즉석 베이커리인 '꿈앤 베이커리'가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소한 즉석 베이커리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접 빵을 만들

고 판매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도모하게 된다.

베이커리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미니 식빵, 오곡빵, 토핑빵, 쿠키류 등 총 5종의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즉석 베이커리는 장애인에게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지역 농업에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 12일 개장

무주군 설천면 소재의 무주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12일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매주 월요일 휴장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시설점검 시간이다.

무주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은 총 767.36㎡ 규모로 성인용 풀장과 인공폭포, 유아용 풀장을 갖추고 있어 모든 연령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탈의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무주 군민은 물론, 진안군과 영동군, 금산군, 거창군, 김천시 등 인접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들은 이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현영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반디휴양팀장은 "더운 여름 무주반디랜드 물놀이장에서 아이들과 시원하고 알뜰한 여름 보내 보시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김제 백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취약계층 위한 백미 840kg 기부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7일 백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재선)가 백미 840kg을 기부해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재선 회장은 “무더위로 고생하는 주민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며,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백구면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부된 쌀은 관내 취약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종교자유세계인권연대, '종교 인권 사진전' 개최

종교 자유인권 보호주제

종교자유세계인권연대(이하 종세연) 전북지부가 지난 3일 전주 수목원 입구에서 '종교 인권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11명의 관계자와 많은 시민이 참석해 종교 차별과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사진전은 종교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는 △세계 각국의 종교 박해 통계 및 사례를 담은 사진 전시 △종교 차별 및 탄압과 관련된 인권

피해 사례 소개 △종세연 단체 소개 및 홍보 리플렛 배포 △종교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이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인권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도슨트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9가지 주요 사진과 종세연의 활동 사진이 소개됐다. 시민들은 종교 박해와 인권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전주=이종래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 일손돕기 활동 나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농가 지원을 위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 60여명의 직원들이 아영면 소재의 포도 농가를 찾아 봉지 씌우기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가는 “무더운 날씨 속 일손이 부족해 막대한 상황에 도움을 준 큰 힘이 되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도 마스터즈 수영대회, 익산시 열띤 경쟁

20대~60대 다양한 연령층

전북특별자치도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지난 6일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익산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익산시 수영연맹과 익산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북 도내 수영 동호인과 생활체육 참가자 약 300여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소속

수영회원 100여명이 자유형, 배영, 평영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해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종합순위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참가자들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과 도전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성과는 평소 공단에서 꾸준히 진행해 온 체계적인 수영 프로그램과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의 결실로 평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경찰-영등중, 학교폭력 예방 크로스핏 기부 챌린지 진행

익산경찰서는 지난 4일 영등중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크로스핏 기부 챌린지 1일 차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를 키우고, 기부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이 일정 시간 동안 크로스핏 운동에 참여하고, 참여 횟수나 소요 시간에 따라 소정의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모인 기부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에 전달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2025 수소도시 군수배 바둑대회' 성황

완주군이 지난 5일 삼례문화체육관에서 '2025 수소도시 완주군 수배 바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의 바둑 동호인 3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승부를 벌였다.

바둑은 착수 한 수에도 깊은 수 읽기가 필요하며, 포석과 사활, 승부수 등 전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창의력, 결단력을 기르는 지혜의 스포츠다.

이번 대회에는 어린이가 꿈나무 바둑선수들도 함께 참가해 세대를 아우르는 대국의 장을 펼쳤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바둑 정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대회는 예선 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치열한 승부 속에서도 멋진 묘수와 침착한 기량을 선보이며 대회를 빛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시,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 개최

정읍시가 한문 경전의 가치를 되새기고 선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성독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5일 토요일, 제18회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가 정읍 배영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경전소리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됐다. 개인전은 학생초등

부, 학생중·고등부, 일반중등부, 일반고등부 등으로 구성됐고 단체전에는 학생과 일반 참가자 10개 팀이 출전했다.

참가자들은 사서삼경 등 전통한문 경전을 선비 복장을 갖추고 소리 내어 읽으며 갈고닦은 성독 실력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문의 중요성과 유학 경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됐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 입암면, 주거 취약가구 청소 봉사 진행

지난 4일, 정읍시 입암면은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사례관리 대상 가정을 방문하고 주택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서부사무소 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안팎을 정돈하며 위생 상태를 크게 개선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부안 보안면 여성자원봉사회, 이웃 500명에 물김치 전달

부안군 보안면 여성자원봉사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청자골 문화센터에서 '사랑과 정을 담은 물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입맛을 돋우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울 수 있는 열무물김치를 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보안면 여성자원봉사회 관계자는 “물김치 한 그릇이지만 이웃들에게는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의 온기를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더욱 건강한 여름을 위한 냉방병 예방법

2시간마다 10분이상 환기 하기

실내온도26~28도 유지 하기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청소하기

찬바람이 피부에 닿지않게 미리 준비하기

〈一事一言〉



이재명 대통령 첫 기자회견에 대한 소회

김관춘
논설위원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많은 상징적 의미를 던져 주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점에 이뤄진 기자회견이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국정운영의 방향성과 비전을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힌 자리였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30일, 그간 대한민국은 혼란의 아수라관에서 서서히 벗어나 다시금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의 '자신감'과 '책임감'이다. 국민들은 7개월 전인 2024년 12·3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민주주의가 타격을 입고 민생은 위기를 맞았던 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즉시 비상경제대응TF를 설치하고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급등에 대해서도 시작에 불과한 '맛보기'라며 단호한 대출 규제를 전격 단행했고, 추가적인 대책을 예고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드라졌다. 여야가 삼법 개정안을 전격 합의 처리하며 정치

협치의 물꼬를 튼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외교 분야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무대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금 알렸고, 대북 확성기 방송의 선제적 중단을 통해 남북 간 침묵의 대치 국면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실용적 접근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절제된 메시지 속에서도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동일한 주체가 둘 다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석 전까지 제도적 일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발언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단지 정치적 개혁을 넘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아직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점도 있다. 일부 인사에 대한 논란은 그 대표적 사례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재산 문제 해명이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했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일부 검사장 인사에서 '기존 친윤 세력'이 포함되며 개혁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결정 역시 농민단체와 진보 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이 어우러져야 단단한 콘크리트가 된다"는 비유를 들며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설명했다. 이는 개혁과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실용적 리더십'의 표현이자, 이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 구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정운영에 녹아들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이번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메시지로 다뤄졌다. 소멸위기 지역에 대해 예산 배정 시 가중치를 두는 방식은 그동안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고민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에서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는 답변은 시기에 따라 아쉬운 대목이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인권 담론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생경제와 개혁이 우선이지만, 인권과 정의라는 가치는 결코 가볍게 다루서는 안 되며 병행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매

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세 협상의 어려움이나 유연한 대일 외교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 놓으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한 것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회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실용과 개혁,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 달이 무너졌던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의 시간'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첫 회견은 연단 없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이뤄졌다. 탈권위적이고 투명한 국정 소통은 내용·형식 모두 의미 있는 시도였다. 지나온 한 달이 국정 정세화의 물꼬였듯이, 이날 회견이 이재명 정부 대국민·대언론 소통 일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정치는 신뢰로 시작해서 성과로 완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그 시작이었고, 국민들은 이제 그 결실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보여준 자신감, 소통의 자세, 그리고 실용주의적 리더십이 향후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국민들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 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다.

사설

정부 첫 추경, 전북경제 회복의 마중물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단행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마치면서, 대한민국의 시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추진된 이번 추경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민생경제 위기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에 그치지 않고 민생 현장에 바로 닿는 '생활형 예산'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띈다. 12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해 농업·피해 복구 지원 등 전 국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되며, 특히 벼랑 끝 위기의 소상공인과 지역업자, 골목상권에 혜택을 키워주는 실효성 높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은 지역 차원에서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4천7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문에서 전북은 4천억 이상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보조율이 90%까지 상향되어 지방재정 부담도 크게 완화되었다.

추경 예산은 단기 민생 지원을 넘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도 활용된다. 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

사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북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지방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와 함께 SOC 확충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에 120억의 보상비가 반영되는 등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북 추경 확보 성과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도정과 지역 정치권이 정부·국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그만큼 이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특히 민생소비쿠폰은 실시 간으로 골목상권과 도민 생활경제에 파급되는 '직접 예산' 만큼 사용자 제한이나 시스템 오류 없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시작일 뿐이다. 전북도는 향후 정부부처 풀 예산 배분, 추가 공모사업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 등과 같은 후속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 전북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목마르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새출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준다면, 다시 성장과 도약의 계도로 올라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민생을 살리는 모범 사례로 남기를 기대하며, 전북도 역시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문화재 열전



광사 일주문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불교, 문
-지정일 - 1971년 12월 2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시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거룩한 식사 / 황지우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을 먹을 때 울컥, 하고 울리오는 것이 있다	양푼의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물기며 순갈 싸움하던 그 어린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메게 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발을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몸에 한 세상 떠 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파고다공원 뒤편 순대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짙 발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시인 약력 :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문학과지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 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등이 있다. 제3회 김수영문학상과 제36회 현대문학상, 2006년 육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공감 뉴~스

독자 여러분을 대변해 드립니다

광고문의 - 282-9601 기사제보 -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새로운 기회 꽃 피워

정성주 김제시장, 민선 8기 취임 3주년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기치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3년간 변화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이제 새로운 기회의 꽃을 피우고 있다.

처음에 가졌던 꿈과 목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김제시의 한걸음 한걸음은 전북의 새로운 길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한 지금 김제시의 주요성과들과 비전들을 살펴본다.

먼저 김제는 역대 최초로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 재정 기조 변화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룩한 뜻깊은 성과로, 2026년 국가예산도 4년 연속 1조원 돌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유치의 최적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김제시는 최초로 대기업(㈜두산)을 유치하는 등 총 30개 기업, 7,81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364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조성 중인 제2 특장차 전문단지과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북 최대 규모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23년 전국 유일의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2024년 8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만경 7공구 방수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으며, 올해 2월에는 새만금 동서도로를, 그리고 4월에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까지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민선 8기 장기 난제 사업에 끝없는 문을 두드리면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됐다. 난제 해결 1호라고 할 수 있는 구 동진강 휴게소는 지난 12년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이었지만, 2024년 6월 5일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김제은천은 올해 1월 콤팩트 스파랜드로 재개장해 향후 전북권 대표 휴양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11월에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김제 내야가 국가보물로 지정되었고, 2024년 6월에는 1,300년 고찰 진봉산 망해사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받으며 김제시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게 되었다.

또한, 2024년 우수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면서 전북권 최초 평생교육분야 3대 국가 인정을 획득하며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2022년 이어 올해 1월에도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할 수 있었고, 김제상공회의소 단독 설립은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1995년 민선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수가 민선 8기 들어 증가세로 반등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은 민선 8기 3주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의 더 큰 여정을 위한 8대 핵심 전략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현재를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먼저, 대한민국 유일의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백구면 일원에 2027년까지 제2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되, 미래 특장차 Car세대 성장프로젝트, 전기 특장차 상용화 기술 개발 등 특장차 산업의 중심지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까지 내실있게 조성하여 특화산업의 새로운 기반과 우수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등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제시 핵심 전략사업이자 제21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확정된 구)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지능형 농업로봇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여 산업 분야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민생은 단단하게 경제는 탄탄하게! 민생경제도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김제상공회의소를 적극

지원하고 김제시 골목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의 소상공인 맞춤 지원사업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부터 창업, 정착으로의 단계별 성장지원 체계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청년, 노인, 취업 취약계층,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 일자리 발굴과 고충 상담,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명실상부 대한민국 농생명 1번지, 첨단농업도시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 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기계 실증·검인증·빅데이터 활용 등 첨단농기계 산업을 집적화하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농기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엔진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김제시 미래 100년 시대를 열어가는 새만금 해양항만중심도시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김제의 미래 100년을 선도할 새만금은 미래세대와 내 고장의 미래를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법원 소송과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확보에 총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국가산단 조성, 심포 배수지 조성 등 김제시 전략사업들이 새만금 기본계획 제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과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등 새만금의 대규모 국책사업들



도 내실있게 추진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북권 최초의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보완용역을 추진 중으로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과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365일 시민의 일상이 편안한 안전한 심도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김제시민 안전보험,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 응급의료지원체계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상 속 시민 안전복지 실현해 나가겠다고, 김제역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예방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차이와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는 교육복지도시

모든 세대가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달리는 모두 배움터 사업, 평생학습진흥지구 사업 등 김제형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겠다고, 김제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김제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산후조리경비, 출산장려금,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지원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김제다움으로 김제의 가치 높이는 문화관광도시

김제시민의 자긍심으로 불리는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하여 새로보미 축제, 국가유산야행 등 제미에 김제의 매력을 더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며, 권역별로서 부권은 방에서 일원 국가명승지 조성, 시

내권은 생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 동부권은 모악산 친환경 산악관광지 시범사업, 남부권은 벽골제 관광지 등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계절 축제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민 힘으로 성장하는 시민중심도시

열린 시장일 운영, 시민 소통의 날 추진, 신속 생활민원 처리 등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연구도입,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위원회 등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든 시정의 중심이자 주인공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김제시를 성장시키는 힘이다"며 "민선 8기의 정책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의 더 큰 여정을 위해 사명을 다 하겠다"고 민선 8기 남은 1년의 각오를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JBT 전북타임스 전북의 이야기 전북타임스와 함께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3-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Your Jeonbuk, Our Stories